

전주 최초 반려동물놀이터 '같이가개' 개장

시,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 내 약 7000㎡ 규모 조성... 3개월간 시범운영기간 거쳐 의견 수렴 미비점 보완키로

전주지역 최초의 반려동물 전용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8일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도의원, 동물보호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놀이터 '같이가개' 개장식을 개최했다.

전주지역 최초의 반려동물놀이터인 '같이가개'는 최근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 내 약 7000㎡ 규모로 조성됐다.

이 반려동물놀이터는 관리실과 이용자 쉼터, 주차장과 더불어 중·소형견과 대형견이 분리돼 이용할 수 있는 동물친화 놀이시설을 갖췄다.

정기휴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동물등록 완료한 반려견(맹견 제외)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다. 이용



전주시는 28일 팔복동 첨단산업단지 공원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시·도의원, 동물보호 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놀이터 '같이가개' 개장식을 개최했다.

료는 무료다.

시는 향후 3개월가량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놀이기구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개장식에는 많은 애견인들이 참여해 반려견과 함께 잔디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주시 유기동물 돌봄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목서운 전주MBC 아나운서가 재능 기부로 개장식 사회를 봐 의미를 더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동물친화도시를 지향해 왔다"면서 "전주에서 처음 조성되는 반려동물 놀이터 '같이가개'가 시민들과 반려견의 산책 공간이자 동물복지의 상징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8일 송천동 에코시티 거주민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덕진구 세병로 210) 아파트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에코시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주시, 운영 수탁자와 민간위탁관리 협약 체결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한다.

시는 28일 송천동 에코시티 거주민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럭(덕진구 세병로 210) 아파트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와 민간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878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500세대 이상)이다.

시는 이날 협약에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총사업비 1억1000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9월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에는 인근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원아모집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교육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우아동 우아한시티 △여의동 민성에코르도 △중양동 태평이파크 △효자동 힐스테이트울림효자 등 총 4곳의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 2020년 26개소에서 지난해 34개소로 증가했으며, 올 연말이면 총 3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영유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도시 지역의 돌봄 수요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이 추가 확충되고 있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예술 품은 '서학예술마을도서관' 개관

전주시, 빛들다·깃들다·스며들다·물들다 4개 코너 다양한 예술도서 등 비치

전주시 서학동예술마을의 오래된 카페·갤러리 건물을 예술마을의 정체성과 예술도서와 작품, 예술정원을 담은 '서학예술마을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전주시는 28일 서학동예술마을 내 서학예술마을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 예술인,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했다.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주변 예술마을과 어우러지고, 기존 공간의 특색 있는 건물 구조와 아름다운 정원의 장점을 살려 예술을 품은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연면적 263㎡에 2개동 2층 건물로 된 이 도서관은 △개방형 열람공간 △사진·음악·미술·연극(공연 등) 분야의 예술도서 및 아트북, 그래픽, LP·CD 비도서, 지역작가 작품이 어우러진 서가 △전시실 △개방형 야외 정원 △외 소공연장 등으로 구성됐다.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예술특화도서관으로서의 의미를 담아 △빛들다 △깃들다 △스며들다 △물들다의 4개 코너에 총 2306권의 다양한 예술



전주시는 28일 서학동예술마을 내 서학예술마을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지역 예술인,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했다.

도서관 북 큐레이션도 있으며, 지역 작가의 작품 60여점도 비치돼 있다.

도서관 2층 '깃들다' 코너는 서학동예술마을의 정체성을 담아 서학동예술마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예술작품집·도록·기증도서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스며들다' 코너는 음악 관련 예술도서 및 LP·CD 비도서, 미술치유 등 예술도서로 구성됐으며, 북층구조 맞은편 다리

연결 공간은 아트북 전문 출판사 추천 및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아트북을 만날 수 있다.

도서관 1층 전시실 공간은 기존의 전시공간을 그대로 살려 조성됐으며, 개관을 기념해 28일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도서관에서 예술을 만나다'를 주제로 서학동예술마을 활동작가 12명이 참여한 서학예술마을도서관 개관 기획전이 진행된다.

끝으로 담쟁이동 2층 '물들다' 코너에는 미술 관련 아트북과 미술·연극(공연) 관련 예술도서, 지역 예술인 기증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예술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빔프로젝터와 테이블도 설치됐다.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휴관일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에 있는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향후 예술도서와 공간을 활용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특화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이곳 주민과 지역예술인, 독서출판인들의 관심과 애정이 모여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며 "서학예술마을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이자 마을주민과 여행자에게 예술적인 감성을 제공하고,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향유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민선8기 전주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시민 정책 제안 이어져

경제·생활·복지 등 66건 접수...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서 운영

민선8기 전주시 우범기시장의 출범을 앞두고 시민과 소통하는 전주시정을 위해 운영하는 시정정책 제안에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부터 전업주부, 자영업자와 기업인 등이 경제와 복지, 생활, 문화영역 등에 걸쳐 전주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8기 전주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시정 정책 제안 코너에 28일 현재 66건의 제안이 접수돼 분야별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전주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 등에 대한 빠른 사업 추진 요구,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확보 등 일상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부터 경제 발전 촉구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시민들의 제안은 '발전된 전주에서 나이를 먹고 싶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주를 만들어 달라', '전주는 소풍 원정을 다녀야 하는 불편한 도시다. 소풍볼 등을 건립하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호남제일

문 옆 고속버스 하차장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다'는 등이다.

'민선8기 전주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지난 20일에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돼 오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은 "정책 제안 코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화하는 쌍방향 소통 창구이다"며 "전주시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담아 시민들이 제시해 준 소중한 의견이 현실화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실시

전주시가 여름철 다중이용시설의 병방기와 수계시설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의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병방기와 수계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건물의 급수시설, 목욕탕 등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들어가 감염되는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는 드물다.

감염이 되더라도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완쾌되지만 면역력이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게 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레지오넬라균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돌봄 지원

전주시가 AI(인공지능)와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다음 달부터 그동안 축적해온 방문보건사업 노하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오늘건강'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영역별 건강전문가로부터

비대면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보건소는 무선인터넷 이용 편의를 제공해 AI스피커 '나눔이'를 현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와 신규 대상자 중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00명에게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6월 말 현재 566명의 노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신규 대상자 15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스마트폰과 연동 가능한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AI 스피커 등 개인 건강 수준에 맞는 기기가 제공된다.

/김윤상 기자

지역 아동·청소년 기관 상담 역량 강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모형세우기 교구 활용 지도자 연수 실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28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모형세우기 교구 활용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주지역 청소년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각급학교 등 아동·청소년 업무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역량을 높여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강사로 초청된 김혜숙 백석대학교 교수는 가족모형에 투사된 방어적 감정을 이끌어 내어 화해와 용서를 돕는 효과적인 상담 도구 활용에 관한 연수를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는 "부모에 대해 방어적인 학생들이 많아 힘들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



해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한 도구로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혜선 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자들의 상담역량 강화를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민체육대회' 3년 만에 재개

시, 관계자 간담회 갖고 성공 개최 위한 의견 청취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된 전주시민들의 화합 축제인 전주시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재개된다.

전주시는 28일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선홍진 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 김범준 회장을 비롯한 전주시 통장연합회 임원, 시체육회 관계자, 전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제29회 전주시민체육대회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4월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대회 개최를 전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시민체육대회를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성취를 치유하고 시민 대통합의 장



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실내대회 개최 후 사라진 동별 입장식 부활 △동대항전 종합시장에 신설 △개·폐회식 지역예선 참여 확대 등 전주시민 화합 한마당인 체육대회의 의미를 지키면서 지역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김승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여 체계적인 준비로 성공적인 전주시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